



인식과 재현

미술사적 관점에서 본 신라와 서역

Silla Peoples Recognition of Western Region People and Their Re-Creation as Art Works

저자
(Authors) 임영애
Lim, Young-ae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28\)](#), 2013.8, 423-456(34 pages)
[SILLASAHAKPO \(28\)](#), 2013.8, 423-456(34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2572>

APA Style 임영애 (2013). 인식과 재현. 신라사학보(28), 423-45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6:0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인식과 재현*

-미술사적 관점에서 본 ‘신라와 서역’-

임 영 애**

- | | |
|--------------------------------|----------------------------|
| I. 머리말 | IV. 신라인의 서역인 인식과 미술품으로의 재현 |
| II. ‘접촉’과 ‘교류’, ‘요소의 전달’과 ‘영향’ | V. 맺음말 |
| III. 唐 미술에 보이는 서역 ‘요소’와 ‘영향’ | |

【국문초록】

이 글의 관심은 ‘신라에 서역인이 살았는가?’, ‘신라와 서역은 교류가 있었는가?’에 있지 않다. 이 글은 신라에 서역인이 살았는지 아닌지와는 별개

* 이 글은 2013년 7월 22~23일 중국 난주대학교에서 있었던 둔황 실크로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토대로 改稿한 것임을 밝혀둔다.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부교수

주요 논저 : <신라하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왕릉 조영과 왕릉 조각의 시기 불일치 문제-> 《불교미술사학》 14, 2012 ; <‘우전왕식(優填王式) 불입상’의 형성, 복제, 그리고 확산> 《미술사논단》 34, 2012 ; <신라 하대 경문왕대 불교조각의 재조명> 《미술사학연구》 278, 2013 ; <외연의 확장, 그리고 도약 -동양미술사 연구(2009~2012년)의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219, 2013 외 다수

로 신라에 서역인의 到來와 서역관련 미술품의 재현이 얼마만큼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에 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이 때 ‘미술품의 재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역인들과의 ‘접촉’ 혹은 ‘교류’의 결과 기왕의 미술에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고, 둘째는 도래한 사람, 즉 서역인의 특이한 얼굴 모습을 직접 미술품으로 재현한 경우이다. 우선 첫 번째 관점에서의 결과물은 통일기 신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일기 신라의 미술품은 강력한 당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에 서역인 혹은 서역 문물이 유입되었을지라도 이미 동아시아 미술의 표준이 된 당의 미술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들로 인한 신라 미술의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당을 통한 ‘서역 요소’의 유입은 있었지만, 서역인에 의한 직접적인 ‘서역 영향’을 보여주는 신라의 미술품은 알려진 바 없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인데, 그 대표 예가 바로 원성왕릉 무인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원성왕릉 무인상을 두고 서역인을 모델로 하여 미술품으로 재현하였거나, 더 나아가 신라와 서역간의 교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무인상의 얼굴 모습이 唐 胡人俑이나 불교 金剛力士像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서역인이 신라 왕릉 호위의 역할을 맡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역인이 통일기 신라에 도래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곧바로 미술품으로 ‘재현’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역할이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또 그 규모가 어떠한가도 큰 변수가 된다. 그들의 신기한 모습을 작은 陶俑으로는 표현하거나 벽화에 胡旋女를 등장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는 심지어 ‘열린 제국’이라고 불리던 가장 개방적이고 유연한 당제국의 미술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제어 : 唐, 胡人, 원성왕릉, 무인상, 西域, 통일신라, 금강역사

I. 머리말

신라에 서역인이 살았는가? 신라와 서역은 교류가 있었는가?¹⁾ 이

질문은 이미 진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물론 이 글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술사를 전공하는 필자의 관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현재 남겨진 자료만을 가지고는 신라와 서역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라에 서역인이 살았을 가능성을 문헌 자료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8세기 전반 당제국의 수도 장안의 인구 70여만 여 명 중 등록된 외국인 인구가 2~3만 명, 미등록 외국인까지 계산하면 대략 5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 중 일부가 신라에 도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²⁾ 만약 중국에 머물던 서역인들이 신라에 왔다면 그들은 대부분 경제적 수익이 목적인 비공식적인 상인들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추측 역시 아직까지 신라와 서역 간의 공식적인 교류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시

-
- 1) 이 글에서의 서역인은 당대 이민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胡人, 즉 소그드인을 일컫는다. 최근 8세기 당 문헌기록의 분석을 통해 ‘胡’가 중국 서방·북방의 여러 민족을 막연하게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그드’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였다는 점을 밝힌 연구 결과가 있다(모리야스 다카오, <당대 불교적 세계 지리와 ‘胡’의 실태>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사계절, 2006, 136~154쪽).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서역인, 호인, 소그드인의 용어를 혼용한다.
 - 2) 8세기 전반 장안의 인구수 통계는 妹尾達彦이 天寶 元年(724) 호적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추정한 것이다(中國古都學會 編, 《中國古都研究》 卷 12, 山西人民出版社, 1998, 179~189쪽). 웨이퍼 교수는 당시 장안의 백만 인구 중 외국인이 대략 2% 정도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chafer, E. H.,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pp.10~11, pp.14~22). 唐 開元년간(713~741)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대략 2.5%에 달한다고 보기도 한다(邱添生, <唐朝起用外族人士的研究> 《大陸雜誌》 38-4, 1969, 68~69쪽).

동아시아의 정황으로 보면 중국에 거주하던 서역인이 이 땅에 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져온 물건을 전해 받는 것 이상의 신라와 서역간의 문화적 교류가 과연 얼마나 행해졌을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글은 사람의 도래와 미술품의 재현이 얼마만큼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에 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모든 문명의 전래는 기본적으로 인적 교류에 의한 것이지만, 몇몇 사람이 왔다고 그들의 모습과 문화가 모두 미술품으로 재현되거나 기왕의 미술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도래한 사람의 규모에 따라, 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람의 유입과 미술품의 재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통일기 신라인의 서역인 인식과 미술품으로의 재현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³⁾

II. ‘접촉’과 ‘교류’, ‘요소의 전달’과 ‘영향’

미술은 특성상 ‘교류’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단순히 2개 혹은 그 이상의 것이 ‘교환 혹은 접촉’ 만으로 모두 ‘교류’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접촉’과 ‘교류’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한마디로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류’이다. ‘접촉’은 교통의 발달과 함께 각종 산물, 인간, 음식, 미술문화 등의 상호간 단순한 만남

3) 이 글은 필자의 예전 논고(임영애, <‘서역인’인가 ‘서역인 이미지’인가 - 통일신라미술 속의 서역인식-> 《미술사학연구》 236, 2002, 45~67쪽)와 기본적인 논지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람의 도래와 미술품으로의 재현’이라는 관점만으로 새롭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을 의미한다. 지역 간에 ‘문화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정복, 교역, 전도의 3가지가 있다.⁴⁾ 이 중 교역은 주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재료가 필요할 때 주변지역에서 수입하면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찰에 중국에서 들여온 철불상이 봉안되었다고 해서 바로 영향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신라 고분에 등장하는 서역계 문물, 즉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嵌玉 팔찌, 계림로 14호분 출토 장식보검, 미추왕릉 상감유리옥 등이 중원의 왕조를 매개로 하여 신라에 전해졌지만, 이들 신문화의 수입이 완제품의 단발적인 이입에 그쳐 ‘영향’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⁵⁾ 이러한 현상은 ‘물건의 전달’ 이상의 진정한 의미의 ‘교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류는 한국의 조각가가 중국 불상의 형식, 양식 나아가서는 중국의 조각가와 조각이 제작된 지역의 성격, 역사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동반되어야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조각가가 중국 철불상의 제작기술을 배워 새롭게 한국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다면 분명 교류는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중국 승려가 한국 사찰에 머물렀다고 해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의 장소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교류도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 승려가 한국 사찰에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4) 榎一雄, 《中國の歴史》 11 -東西文明の交流-, 講談社, 1977, 57쪽; 임영애, 《교류로 본 한국불교조각》, 학연문화사, 2008, 13쪽의 주 1).

5) 신라 고분에 등장하는 소위 ‘서역계’ 문물이 중국 중원을 매개로 하여 신라에 전해졌다고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한상, <신라고분 속 외래문물의 조사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6, 2010, 79쪽; 이한상, <신라고분 속 서역계문물의 현황과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45, 2007, 156~157쪽; 咸舜燮, <新羅麻立干時期에 移入된 中央아시아 및 西아시아의 文物> 《新羅, 서아시아를 만나다》, 국립경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08; 국제학술심포지엄 《신라문화와 서아시아문화》,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2008, 128쪽.

생각의 교환이 행해져야만 교류는 비로소 일어난다.⁶⁾ 물론 그 숫자는 대규모여야 하며 공식적인 관계일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실제로 인도와 서역, 서역과 중국, 중국과 한국, 즉 인접 지역 간에는 분명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접 지역을 뛰어넘는 서역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했을까? 다시 말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인도와 한국, 서역과 한국 간의 직접 교류가 가능했을까?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황상으로 보면 신라에 서역인이 유입되었다면 대부분 중국에 머물던 서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들이 통일기 신라에 왔을지라도 ‘물건의 전달’ 이상의 ‘교류’가 이루어졌을까 역시 또 다른 문제이다.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면 신라미술에서 서역의 영향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서역 요소’는 있지만 ‘서역 요소’와 ‘서역 영향’은 엄밀히 다른 의미로 이 또한 서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접촉’의 결과 ‘요소’는 전달될 수 있지만, ‘영향’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영향’은 ‘교류’를 통해서야 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역 요소’는 당의 미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다. 전성기 당의 미술은 인도, 서역, 페르시아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문화가 당의 문화와 결합하여 하이브리드(hybrid), 즉 이종교배되었으며, 당의 미술 안에는 이미 한족의 미술과 비한족의 미술이 섞여 있다고 알려져 있다.⁷⁾ 이런 이유로 신라미술에 나타나는 ‘서역 요소’는 굳이 서역과의 교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의 미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입

6) 林玲愛, 앞의 책, 13쪽.

7)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2007, 186~220쪽; 최진아, <대당제국과 팍스 시니카(Pax-Sinica)의 기획 -唐代 서사에 나타난 중국 문화의 混種性 연구-> 《중국어문학지》 37, 2011, 161~183쪽.

될 수 있었다.

Ⅲ. 唐 미술에 보이는 서역 ‘요소’와 ‘영향’

8세기 전반 장안의 인구 70여만 여 명 중 등록된 외국인 인구가 2~3만 명에 달하였다는 통계 수치만을 두고 당시 장안 거리를 활보하였을 서역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문헌에서 전하는 당시의 상황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당대 수도 장안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각기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어 서로 접촉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⁸⁾ 실제로도 唐律에서 漢人과 외국인과의 사적교류 및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⁹⁾ 이와 관련하여 7세기 중엽에 발간된 《唐律疏議》는 아래와 같은 상세한 기록을 전한다.

A-1. 무릇 변경의 關塞를 넘어 건넌 자는 徒刑 2년에 처한다. 외국인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여 혹은 사고 판 경우, 1척이면 도형 2년 반에 처하고, 3필마다 1등씩 가중하며 15필이며 加役流에 처

-
- 8) 朴漢濟, <唐代 長安의 공간구조와 蕃人生活> 《全海宗博士八旬紀念論叢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61쪽. 당 장안성의 西市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서역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미 隋 大興城의 건설단계부터 주민의 분류별 분포가 시행되었음에 관해서는 박한제, <隋唐 長安城의 市場風景 : 胡漢文化의 交流와 統合의 現場> 《歷史教育》 84, 2002, 288쪽 참조.
- 9) 《唐律疏議》 권8 衛禁律, 88 ‘越度緣邊關塞’條 疏議, 178쪽. “又準主客式 ‘蕃客入朝 於在路不得與客交雜 亦不得令客與人言語 州縣官人若無事亦不得與客相見’”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재영, <唐 前期 長安內의 소그드人 對策> 《서울大 東洋史學科 論集》 23, 1999, 26쪽 ; 최재영, <당 長安城의 薩寶府 역할과 그 위치 -唐朝의 突厥對策과 관련하여-> 《中央아시아研究》 10, 2005, 25~50쪽 참조.

한다.¹⁰⁾

2. 외국인이 넘어 건너와서 국경에 들어와 중국인과 교역한 자가 죄를 받는 것은 모두 중국인이 넘어 건너가서 교역한 죄와 같고, 곧 상주하여 勅을 기다린다. 국경의 출입은 공적인 사신(公使)이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단지 ‘넘어 건너다’라고만 하고 ‘사사로이 건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사사로이 건너서 교역하면 죄를 받는 것은 모두 같다. … 또 主客式에 의하면 “외국의 客이 입조하면 길에서 客과 交雜할 수 없고, 또 客으로 하여금 (중국) 사람과 대화할 수 없게 한다. 州·縣의 官人은 만약 일이 없으면 또한 客과 서로 相見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곧 이것은 국내의 관인, 백성은 客과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사로이 혼인을 맺으면 위의 법과 같다. 가령 외국인으로서 입조하여 머무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혼인하여 처첩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만약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勅을 어긴 죄로 처벌한다.¹¹⁾

이처럼 외국인과 중국 내지인은 길에서 교류할 수 없고, 지방 관리들도 공무가 없는 이상 외국인을 만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적고 있다. 그리고 보면 상상했던 것처럼 장안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호인과 외국인의 자유로운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이동이 자유로워야 하는 상인들조차도 통행의 제약이 있었다. 상인들 역시 공적인 이동은 물론 사적으로 이동할 때에도 반드시 통행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¹²⁾ 당대 서역상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

10) 《唐律疏議》 권8 衙禁律 越度緣邊關塞條, 669쪽; 劉俊文 撰, 《唐律疏議箋解》, 中華書局, 1996; 김택민·임대희 공역, 《譯註 唐律疏議 各則》(上), 한국법제연구원, 1997, 2089쪽.

11) 김택민·임대희 공역, 앞의 책, 2090~2092쪽.

12) 소그드인의 국내 이동에서 조차 過所, 公驗이라 불리는 국내여행허가증이 필요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程喜霖, 《唐代過所研究》, 中華書局, 2000, 59쪽; 최재영,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

이 내지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출입 목적과 신분, 그리고 소지한 물건을 자세히 검사한 후 통행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처럼 성격상 이동이 불가피한 상인조차도 국내 이동을 할 때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당시 이동의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세기 당시 장안에 머물던 서역인의 일부가 신라에 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상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역인들이 자유로운 이동은 금지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더구나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신라로의 입국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구법승 엔닌(圓仁)(794~864)도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朝貢使를 그만두고 중국에 남기위해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받으려고 11개월을 고생했다.¹³⁾ 이는 그에게 그를 보증해줄 보증인이 없었기 때문인데, 서역인의 경우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에 귀화하거나 장기간 머물며 소속이 분명한 경우는 통행증 발급이 비교적 쉽지만 특히 단기간 머무는 경우 그가 공식사절이 아닌 한 이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눈을 돌려 장안에 서역인이 2만 명이나 거주하였다는 당제국의 미술을 살펴보려 한다. 8세기 당에는 페르시아, 소그드, 위구르 등지에서 유입된 무희나 기녀가 황실에 진상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會 -唐朝의 외래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35, 2004, 238~270쪽.

- 13) 839년 3월 5일 중국에 남기로 결정하고 840년 4월 1일 공험을 받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엔닌 지음, 김문경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중심, 2001, 124~272쪽; 김택민, <재당신라인의 활동과 公驗(過所) -엔닌의 공험 취득 과정에서 장보고·신라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의문물교류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191~220쪽.

이다.¹⁴⁾ 그 중에서도 ‘718년 소그드에서 호족의 춤인 호선무를 추는 胡旋女를 조공’했다거나¹⁵⁾, ‘729년 호선녀 3명을 조공’, ‘727년 史國에서 호선녀와 포도주와 표범을 진상’했다는 기록,¹⁶⁾ 심지어 당 현종의 양귀비도 호선무를 잘 추어 ‘귀비의 胡旋은 君心을 매혹하였다’¹⁷⁾는 기록을 통해 역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胡人, 즉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서역인임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당대에는 호선무와 같은 그들의 춤뿐 아니라 胡服, 胡帽, 胡食, 胡樂, 胡粧 등 호인의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을 뿐 아니라 호인과 호녀를 소재로 다룬 수도 없이 많은 詩가 남겨져 있다.¹⁸⁾

돌이켜보면 당대 그렇게 많은 호인들이 장안에 머물렀고, 그들의 미술이 漢族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모습이 중국 전통미술에 반영되어 표현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때 그들이 중국미술에 영향을 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역요소’로 서역인의 모습이 그대로 미술품으로 재현된 경우이며, 둘째는 ‘서역영향’으로 인해 기왕의 미술이 변모된 경우이다. 첫째, 그들의 모습이 미술품으로 재현된 경우는 널리 알려진 대로 무덤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크기의 胡人俑이다(도1).¹⁹⁾ 그 밖에 당

14) 이시다 미키노스케, 이동철·박은희 옮김, <수당시대의 이란 문화> 《장안의 봄》, 이산, 2004, 342~346쪽.

15) 《冊府元龜》 권971.

16) 《唐書》 권221.

17) 白居易, <胡旋女> 《全唐詩》 권426.

18) 《舊唐書》 권45 輿服志. ‘銀鞍白鼻騮 祿地障泥錦 細雨春風花落時 揮鞭直就胡姬飲’ 《李太白全集》 권6 樂府三十八首, 166쪽 “은색 안장 하얀 코의 공골말을 타고, 녹색 바탕 말다래에 비단 드리우고, 가느다란 비 봄 바람에 꽃 떨어질 때 채찍 휘둘러 곧장 胡姬에게 달려와 술마시네”. : 이지운, <唐詩에서의 胡姬形象으로 본 唐代的 異文化 認識> 《中國語文學誌》 27, 2008, 7~41쪽.

19) 남북조시대와 수당대의 능묘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호인용은 대부분이 짐

대 돈황 막고굴 벽화의 극락정토변상도 속에 역시 작은 크기의 胡旋女로 재현된 예(도2, 3), 막고굴 제103굴, 제220굴 유마경변상도에 묘사된 각국의 청중들이 있으며, 그 이외의 범주에서 그들의 모습이 미술품으로 재현된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당나라 사람들조차 그들의 문화를 엑조티즘(exotism)으로 바라보고 선호하기는 했지만 미술품으로의 재현은 단지 작은 陶俑으로 재현하거나 경변상도 중에 호선녀를 등장시키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



(도1) 胡商人俑,
7~8세기, H.23.5cm,
낙양박물관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pl. 205).



(도2) 돈황막고굴 제112굴
관경변상도(《敦煌莫高窟》,
平凡社, 1999, 圖54).



(도3) 도2의 胡旋女

실은 낙타를 이끄는 駝夫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소그드인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민병훈, <소그드 상인과 위구르 상인> 《동원학술논문집》 14, 2013, 247쪽).



(도4) 三彩駱駝樂人, 西安 鮮于庭海墓(723年),
H.66.5cm, 北京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所藏(*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pl. 201).

이다.²⁰⁾ 이들 호인용은 당의 이국적인 취향을 잘 반영해주는데, 西安 鮮于庭海墓에서 출토된 당삼채 낙타도용은 사실적인 낙타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호인들을 통해 당의 이국적인 취향을 잘 대변해준다 (도4). 이처럼 당대 미술에서 호인의 적극적인 표현은 이국적인 그들의 삶을 재현한 陶俑이나 벽화 속 호선녀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

두 번째는 즉 호인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미지가 불교미술에 영향을 준 경우인데, 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서역 영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대 보살상에 보이는 특징적인 표현이 호희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대 보살상의 모델이 호희의 이미지였다고 보기도 하고,²¹⁾ 당대 금강역사상이나 사천왕상의 이국적인 얼굴 모습이 당시 무관으로

20) 당제국의 이국문화 취향에 관해서는 Schafer, E. H., 앞의 책, 1963, 28~39쪽 참조.

21) 당대 경변상도에 묘사된 호선녀 또는 호무를 추는 舞工은 호희의 일종으로, 돈황 막고굴에 나타나는 이들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당대 보살상에 보이는 특징적 표현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당시 도용이나 회화에서 보이는 여성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호희의 이미지가 보살상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 인체 표현의 풍만화 경향이 당대 전반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강희정, <唐代 菩薩像의 여성적 이미지와 그 정체성> 《미술사학》 20, 2006, 7~34쪽).

도 활약했던 호인의 이미지를 본뜬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도5).²²⁾

이처럼 당대 미술에는 호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서역 요소’와 불교미술 속에 투영된 ‘서역 영향’을 모두 찾아볼 수 있지만, 서역인의 등장으로 당의 미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인의 각종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호문화가 당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라 그저 감각적이고 표피적 측면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지나갔을 뿐이라고 생각한다.²³⁾ 그들의 모습이 미술품에 등장하기



(도5) 천왕상
얼굴(《世界美術大全集》
東洋篇 4, 小學館, 1997,
圖116의 부분)

는 하지만 소그드 전통미술 양식이 중국미술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들의 관념, 사상, 종교 등이 당 문화에 깊숙이 침투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장안의 布政坊, 禮泉坊, 普寧坊, 義寧坊 등지에 이국의 종교 사원들이 세워져 신앙의 공간으로, 또 동족들이 함께 모이는 집회장소로 사용되었다.²⁴⁾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漢族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신앙 공간은 동족들이 모이는 집회장소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²⁵⁾

22) 林玲愛, <중국 신장상의 얼굴 변화 -異人化의 시작-> 《강좌미술사》 26, 2006, 259~280쪽.

23) 필자와 유사한 견해는 다음의 논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葛曉音, <論唐前期文明華化的主導傾向> 《中國社會科學》 1997-3, 1997, 131~146쪽).

24)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 明文書局, 1988, 1~39쪽.

25) 당이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종교에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한 포용의 이면에는 외래종교를 종교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현실적인 태도가 깔려 있었다(조성우, <唐代 景教 教團의 活動과 그 性格 -外來 宗教에 대한 唐의 태도와 관련

한편 서안에 거주하던 소그드인들은 종교, 생활풍습 등에서 자신의 고유 전통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중국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 애썼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입증하는 예로 당대 서안에서 발견된 100여기의 소그드인 무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애석하게도 부장품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무덤은 극히 드물다.²⁶⁾ 이런 이유로 비록 6세기 후반 北周의 예이기는 하지만 섬서성 서안에서 발견된 571년 康業墓, 579년 安伽墓, 580년 史君墓 등에서 발견된 石葬具를 통해 살펴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들 석장구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도상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도6).²⁷⁾ 이들 석장구 도상은 소그드미술의 대표 예인 판지켄트 I-10호, III-7호 벽화와 기본적으로 유사하여 동시기 중원지역의 고분벽화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도6) 虞弘 石葬具(드로잉), 수 開皇 13年(592), 섬서역사박물관(*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p. 281).

하여-> 《중국고중세사연구》 4, 1998, 208~209쪽).

26) 소그드인 묘지에 관해서는 榮新江 外, 《從撒馬爾干到長安·粟特人在中國的文化遺迹》,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참조.

27) 정연, 서윤경 역, <北周 康業墓 석침상의 새로운 해석> 《미술사논단》 28, 2009, 241~254쪽; 정완서,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5, 2010, 328쪽; 서윤경, <中國 喪葬美術의 東西交流-北朝시기 西域民族의 石葬具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24, 2007, 97~127쪽.



(도7) 永泰公主 李仙蕙
(684-701) 壁畫(모사), 706年
陪葬(陝西歷史博物館 編,
《唐墓壁畫集錦》, 1991, 圖 147).



(도8) 하프를 연주하는 여인, 8세기,
판지켄트(《シルクロート・オアシスと
草原の道》, 1988, 圖185)

葬法의 변화, 즉 그들의 고유 장례풍습인 風葬을 하지 않고 土葬을 한다거나, 중국 고분의 형식을 따른다거나, 墓誌를 납입하는 일 등은 완전히 중원의 형식을 따른 것이다.²⁸⁾ 이처럼 중국에 거주하던 서역인은 중원의 형식과 일정부분 동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들 전통의 미술도상을 잃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 도상이나 미술 양식은 중원 미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도7, 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역인 미술이 표피적인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편 9세기가 되면 당에서 조차 서역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뀐다. 8세기 후반 安史의 亂(755~763) 말기에 揚州를 함락시킨 田神功의 군대가 아랍, 페르시아 상인 수천 명 살해했다.²⁹⁾ 이어서 822년 당

28) 그들의 장례풍습인 풍장에 관해서는 榮新江, <絲綢之路上的粟特商人與粟特文化> 《西域 中外文明交流的中轉站》, 香港城市大學出版社, 2009, 85쪽 참조.

29) 《舊唐書》 권100 劉景山傳, 3313쪽. “居職四年 會劉展作亂 引平盧副大使 田神功兵馬討賊 神功至揚州 大掠居人資產 鞭笞發掘略盡 商胡大食波斯等

제국은 장안의 西市 일대의 호인 상점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도 하는데, 이는 호인의 상점이 고리대금업을 겸하며 장안 도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828년 6월에는 당 文宗(827~840) 장안 사람들의 호풍 복식을 엄금하는 勅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武宗(재위 840~846)년간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외래종교들을 핍박하였는데, 특히 會昌5年, 즉 845년의 불교를 비롯하여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마니교 금지령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³⁰⁾ 또 황소의 난(875~884) 때 황소의 군대가 879년 광주를 함락시키고 이슬람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도 등 12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도 있었다.³¹⁾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후 당은 이민족 및 이민족의 문화를 혐오하고 漢族 중심의 복고주의를 표방한다. 이런 이유로 9세기 전반이면 이민족의 풍습은 이미 중국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며, 특히 845년 회창폐불 이후 호인에 대한 적대감은 가속화된다.

이러한 경향은 인도로 간 중국 구법승의 숫자로도 입증된다. 6세기 18인에 불과했던 기록상의 중국 구법승 숫자가 7세기에는 124인으로 급격히 늘어났다.³²⁾ 이것은 인도 및 서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8세기 이후에는 84명으로 줄었고, 9세기에는 단 두 명의 일본 출신 구법인만이 중국에서 인도로 갔을 뿐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구법인들에 높은 관심을 표했던 문헌이 적은

商旅 死者數千人”；《舊唐書》 권124 田神功傳, 3533쪽. “尋爲鄧景山所引至揚州 大掠百姓商人資產 郡內此屋發掘略徧商胡波斯被殺者數千人”.

30) 회창 폐불로 폐쇄된 불교 사원이 4,600여, 般若 40,000여, 환속된 僧尼가 265,000여 명이고 함께 환속된 경교와 조로아스터교 사제 2,000명이라고 한다(《新唐書》 권52 食貨志 2, 1361쪽).

31) 藤本勝次 譯, 《シナ・インド物語》, 關西大學出版部, 1976, 28쪽.

32) 이주형, <인도로 간 구법승>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사회평론, 2009, 13~41쪽.

탓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인도나 서역으로 향하는 구법인의 수가 7세기에 비해 급격히 줄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8세기 중반~9세기경은 육로보다는 해로가 훨씬 우세했던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³³⁾ 안사의 난 이후 육로는 막혔지만, 공급량의 증가와 항해·조선술의 발달하면서 수많은 외국상인들은 해로를 이용하게 된다. 특히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揚州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곳 양주에 집결한 서역인은 육로의 소그드인보다는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³⁴⁾ 앞서 879년 황소의 난 당시 황소의 군대가 광주의 이슬람교도, 조로아스터교도 12만명을 살해하였다는 기록을 상기하면 양주뿐 아니라 광주에도 많은 수의 이국인이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이에 따라 시기만을 두고 보면 9세기 신라에 서역인이 도래하였다면 그들은 소그드인이기보다는 해로로 廣州에 온 후 양주에서 활동한 페르시아인이나 아랍상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IV. 신라인의 서역인 인식과 미술품으로의 재현

신라와 서방 나라들과의 ‘접촉’을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은 9세기 후반부터 보인다.³⁶⁾ 9세기 후반부터 14~15세기까지 17명의 무슬림학

33) 김상범, <당대 후반기 揚州의 발전과 외국인사회> 《중국사연구》 48, 2007, 113~150쪽.

34) 당시 江淮운하와 양주의 지역적 특징에 관해서는 박근칠, <唐代 漕運路와 外商의 活動 -江淮運河와 新羅商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3,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269~280쪽 참조.

35) 주 31)과 《全唐文》 권79 痴愈德音 太和 8년 참조.

36)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

자들에 의해 집필된 20편의 신라관련 기술이 있다고 한다.³⁷⁾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은 이븐 쿠르다드비(Ibn Khurdhābih : 820~912)의 것으로, ‘중국의 맨 끝 광주의 맞은편에는 많은 산과 왕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신라국이다. 이 나라에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일단 들어가면 그곳의 훌륭한 때문에 정착하고자 한다. 이 나라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³⁸⁾라고 적고 있으며, 9세기 아랍인 사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알 마수디(Al masūdi : ?~965)는 신라에 간 아랍사람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보석이 일품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전한다. 이러한 문헌기록들은 신라에 대한 소식이 멀리 아랍 지역까지 전해졌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기록으로 인용되어 왔다³⁹⁾. 그러나 주된 내용들이 지리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전설적이며,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많고, 또 신라멸망 후에도 여전히 ‘신라’라고 부르고 있는 점 등에서 체험에 의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왕래하던 아랍상인의 傳聞을 기초로 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⁴⁰⁾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들이 ‘신라’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⁴¹⁾

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96~101쪽 참조.

37) 이희수, 《한·이슬람교류사》, 문덕사, 1991, 59~74쪽. 이 중 9명의 저자에 의한 10편의 아랍어 문헌이 무슬림들의 한반도 진출과 정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이희수, <이슬람권의 한국사 관련자료 소개> 《역사와 현실》 8, 1992, 378쪽).

38) *Ibn Khurdādhīb, Kitābu'l Masālik wa'l mamālik*(886), ed. de Goeje M.J., Leiden, 1889, 70쪽.

39) 무함마드 간수, <중세 아랍인들의 新羅地理觀>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15, 1994, 349~382쪽 ; 정수일, 《썰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2001, 64쪽 ; 이희수, 앞의 책, 1991, 57~74쪽 ; 김정위, <중세 중동문헌에 비친 한국상> 《한국사연구》 16, 1977, 33~34쪽.

40) 고병익, <한국과 서역>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사》, 삼지연, 1984, 83쪽.

41) 최근 서사시 쿠쉬나메에 언급된 신라관련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이희수,

위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라와 서역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문헌 사료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위의 이슬람 사료들이 신라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라와 서역과의 직접 '교류'의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헌 사료의 영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통일기 신라에 남겨진 몇몇 미술품을 두고 이는 신라와 서역과 긴밀한 교류의 증거라고 말한다. 이제 통일기 신라에 남겨진 미술품 중 서역과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예들을 통해 이들을 실제로 신라와 서역간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남겨진 신라의 미술품 자체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통일기 신라의 미술품에서 서역의 흔적을 찾을만한 예는 많지 않다.⁴²⁾ 늘 거론되는 작품이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8)릉의 무인상, 경주 구정동 방형분 隅柱石 武人像, 국립경주박물관 정원의 獅子孔雀連珠圓文石造物이 고작이다.⁴³⁾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 중 獅子孔雀連珠圓文石造物은 '서역 요소'를 지닌 예이지 '서역 영향'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도9). 적어도 영향을 논할 수 있으려면, 동일한 유형의 작품이 이후에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Kush-nameh)의 발굴과 신라 관련 내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3, 2010, 99~113쪽. 쿠쉬나메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서사시들을 모아 11세기 한 이란학자가 필사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인데,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신라 관련 내용을 역사 사료로 받아들여기는 어렵다. 이희수도 밝히고 있듯이 쿠쉬나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음역이 당시 신라사회의 지명, 인명과 일치하는 바가 없고, 당시 신라 왕실이나 사회에 관한 묘사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이희수, 앞의 논문, 112쪽).

42) 木下 亘, <신라유물을 통해서 본 서역과의 교류> 《한국의 고고학》 17, 2011, 49~57쪽.

43) 이 작품에 관한 상세한 조사보고는 木下 亘, <國立慶州博物館藏 獅子孔雀連珠圓文石造物について>, 《三次元計測技術を用いた新羅王陵石像彫刻の総合的比較研究》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2009, 48~67쪽 참조.



(도9) 獅子孔雀連珠圓文石造物, 국립경주박물관 정원
(사진 임영애)

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석조물과 같은 구조와 형식의 작품은 아니지만 좌우대칭의 쌍조문 주위에 연주문이 둘러진 유사한 도상은 통일기 신라와 唐의 기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 이 작품을 두고 굳이 서역을 거론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일회성의 ‘서역 요소’가 아닌 보다 본격적인 서역 관련 미술품으로는 통상 제38대 元聖王(在位 785~799)의 능역에 조성된 이국적인 얼굴의 武人像을 꼽는다(도10). 그렇다면 원성왕릉, 즉 패릉의



(도10) 원성왕릉
석인상 (사진 임영애)

무인상은 ‘서역의 영향’을 받은 예라고 보아도 좋은가? 원성왕릉 무인상은 튀어나올 것처럼 커다란 눈, 큰 코와 불거진 광대뼈, 땃수룩한 수염, 주먹을 불끈 쥐어 가슴에 대고 있는 오른손 등의 표현에서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신라미술에서 유례가 없었던 왕릉 앞의 이 이국적인 모습의 무인상을 두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이토록 사실적인 모습으로 재현되려면 서역인이 이 땅에 왔고, 그들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라 왕릉을 지

키는 무인상이 곧 서역인의 재현이어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금강역사상과 같은 불교미술의 신장상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본 견해이다.

첫 번째 주장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원성왕릉의 무인상이 조성된 9세기 후반에 서역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한다.⁴⁴⁾ 그러나 9세기 전~중반, 당제국의 호인 단속 기간 동안 잘 알려진 대로 신라역시 극심한 혼란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제국의 단속을 피해 서역인들이 신라에 왔을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희박하다. 경제적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들이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혼란기 신라를 찾았을 가능성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⁴⁵⁾ 이는 원성왕릉 무인상이 조성되는 9세기 후반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그들이 당에서 얻지 못하는 또 다른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신라에 왔을지라도 결국 그들의 주 업무는 요

44) 최근 필자는 <崇福寺 碑銘>의 검토를 통해 원성왕릉 석인상이 원성왕 사망 직후가 아닌 경문왕(재위 861~875)대, 즉 9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林玲愛, <신라하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왕릉 조영과 왕릉 조각의 시기 불일치 문제-> 《불교미술사학》 14, 2012, 7~33쪽). 이 글에서는 <승복사 비문>에 기록된 ‘곧 先代(원성왕)를 계승하여 절을 증수하고 위엄으로 능역을 호위할 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라든지, 경문왕의 꿈에 원성왕이 나타나 ‘나는 너의 선조이니라. 네가 불상을 세우고 나의 능역을 꾸며 호위하고자 하는데’라는 대목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두 번이나 등장하는 ‘陵域의 護衛’라는 표현은 바로 경문왕대에 비로소 왕릉 호석의 십이지상이라든지, 무인상을 세워 능역을 수호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45) 호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관해서는 《舊唐書》, 《通典》, 《冊府元龜》 등의 사료에 잘 기록되어 있다. 《舊唐書》 권198, 西戎 康國傳 5310쪽. “善商賈 爭分銖之利 男子年二十 即遠之旁國來適中夏 利之所在 無所不到” ; 《通典》 권193, 5256쪽. “康國人並善買 … 以得利多爲善” : 《冊府元龜》 권961 外臣部 土風3 康國條, 臺灣中華書局, 1981, 11304쪽下. “利之所在 無所不到”.

석업, 말 사육 혹은 동물 물이꾼이거나 보석을 감정하고 파는 보석상, 약재상과 같은 장사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⁴⁶⁾ 당나라 사신들과 함께 호인이 이 땅에 도래하였거나, 호인 단독으로 사무역을 위해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목적은 장사라는 점이다. 신라왕실에서 왕릉을 조성하면서 과연 낮은 신분의 그들 모습을 왕릉 앞에 재현해두고 수호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을까? 아울러 11세기에 아랍의 상인이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 땅에 왔을 때도 그들의 특이한 얼굴을 미술품으로 재현한 예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⁴⁷⁾

필자는 여러 글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성왕릉 입구의 ‘서역인 이미지’ 무인상을 신라에 도래한 서역인의 모습을 재현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⁴⁸⁾ 기본적으로 서역인이 신라 왕릉, 그것도 하대 신라의 開祖인 원성왕릉의 수호를 맡아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8세기 전반 당의 수도 장안에 2~3만여 명의 서역인이 거주하였을 때조차, 심지어 그들의 군사역할을 담당하였을 때도 그들의 모습을 황제릉 앞에 세워 황릉 수호의 역할을 맡긴 적이

46) 妹尾達彦, <都市の外國商人-8・9世紀の中國における異人買寶譚> 《都市と共同體》, 名著出版, 1991; 曾布川 寛・吉田 豊 編, <ソグド人の美術と言語》, 臨川書店, 2011, 194쪽. 《太平廣記》 권65 趙旭, 404~406쪽에도 양주의 외국인 보석상에 관한 이야기가 전한다.

47) 《고려사》에는 1024년 “9월에 大食國의 悅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高麗史》 권5, 世家5 顯宗 15년)라든지 “11월 병인일에 大食國의 뜨내기 상인 保那蓋 등이 와서 水銀, 龍齒, 占城香, 沒藥, 大蘇木 등 각종 물자를 바쳤다. 왕이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客館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돌아 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히 주라고 하였다”(《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6년)는 언급이 있다.

48) 소위 ‘서역인’ 얼굴을 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상은 중국인이 만들어 낸 ‘서역인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필자는 이를 ‘서역인 이미지’라 부른다(林玲愛, 앞의 논문, 2002, 45~67쪽; 林玲愛, <“統一新羅の美術に現れる”西域人のイメージ> 《佛教藝術》 287, 2006, 27~44쪽).

없다.⁴⁹⁾ 중국 황제릉 神道에 도열해 있는 문무인석 중 어디에서도 서역인을 모델로 한 예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⁵⁰⁾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 통일기 신라에서만 특별히 서역인에게 왕릉 수호의 역할을 맡겼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왕릉 앞 무인상의 복장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원성왕릉 무인상의 복식은 서역인, 즉 소그드인의 전통 복식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중국식 복장이다(도10, 11과 12, 13).⁵¹⁾ 물론 허리에 차고 있는 둥근 주머니나 머리에 두른 띠는 서역인 복식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당대 중국인의 복식에서도 남녀를 불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어서 서역인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신라인들이 서역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서역인을 왕릉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서역인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복식, 즉 胡帽를 쓰고 깃이 벌어진 호복을 입은 모습으로 재현되었어야 한다(도14, 15). 그리고 보면 원성왕릉 무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서역적인 특징은 단지 얼굴 모습뿐이다. 그러나 그 얼굴 모습 또한 같은 시기 불교 금강역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서악의 능묘에서 발견된 문비의 금강역사상과는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이 문비의 금강역사상은 당시 불교 신장상이 능묘 조각에 투영되었음을 알려주

49) 蕃酋 君長像은 唐에 복속된 서방과 북방 제국의 군장과 使者를 형상화한 것이며, 太宗 昭陵을 시작으로, 高宗 乾陵, 玄宗 泰陵, 德宗 崇陵, 懿宗 簡陵 등에 보인다(來村多加史, 《唐代皇帝陵の研究》, 2001, 學生社, 176~179쪽). 이들 번추 군장상은 온전히 남겨진 예가 없어 현상 파악이 어려워 비교할 수도 없지만, 원성왕릉 무인상과는 기본적인 역할이 다르다.

50) 神道에 武官像 10기는 세우기 시작한 때는 고종(628~683) 乾陵부터이지만, 왼쪽에 문관상 10기, 오른쪽에 무관상 10기를 두는 左文右武의 배열로 바뀐 것은 玄宗 泰陵 이후이다(來村多加史, 앞의 책, 2001, 172쪽).

51) 宮下佐江子, <新羅王陵の石像に見られる服飾品について>, 《三次元計測技術を用いた新羅王陵石像彫刻の総合的比較研究》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2009, 68~74쪽.



- (도11) 원성왕릉 석인상 뒷모습 (사진 임영애)(좌)
(도12) 永泰公主 李仙蕙(684-701), 706年陪葬(모사)
(陝西歷史博物館 編, 《唐墓壁畫集錦》, 1991, 圖 147)(중)
(도13) 男裝侍女(모사), 段簡壁墓壁畫(陝西歷史博物館 編,
《唐墓壁畫集錦》, 1991, 圖 17)(우)



- (도14) 호인옹, 唐, 섬서역사박물관(좌)
(도15) 章懷太子墓 壁畫 客使圖 중 胡人(모사)
(陝西歷史博物館 編, 《唐墓壁畫集錦》, 1991, 圖 118)(우)

는 단적인 예여서 원성왕릉 무인상이 왕릉 앞에 서게 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도16, 17).



(도16) 서악출토 문비석, 경주시 서악동 고분,
H.150cm(《국립경주박물관》, 2001, 도147) (좌)
(도17) (도16)의 얼굴 (우)

이에 따라 필자는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서역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며, 寺域의 입구에서 수호의 역할을 담당한 불교의 금강역사상을 모델로 하였다고 본다. 특히 신라 왕릉 조각에 투영된 불교미술의 영향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천왕상과 흡사한 갑옷을 입은 왕릉 호석의 십이지상, 불교 獅子像을 연상시키는 능역의 사자상 등은 불교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앞서 서악능묘 문비의 금강역사상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원성왕의 경우 유언에 따라 화장하였을 뿐 아니라,⁵²⁾ 그의 능은 원성왕의 외척인 金元良이 창건한 사찰

52)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 10 元聖王 14년. “冬十二月二十九日 王蒙諡曰元聖 以遺命 舉柩燒於奉德寺南.” 통일기 신라 27명의 왕 중 화장을 한 경우는 제30대 문무왕, 제34대 효성왕, 제37대 선덕왕, 제38대 원성왕, 제51대 진성여왕, 제52대 효공왕, 제53대 신덕왕, 제54대 경명왕인데, 모

인 鵠寺를 이전하고 그 위에 조성한 것임을 상기하면 불교와의 관계를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⁵³⁾ 이러한 논의는 필자의 이전 연구 성과에서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⁵⁴⁾

물론 원성왕릉 무인상의 제작에는 불교의 금강역사상만이 그 배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대 능묘 내부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호인용 역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중국인이 만들어 놓은 호인용의 얼굴모습은 실제 서역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된 모습이라는 점이다. 중국인이 만들어 낸 과장된 모습의 ‘서역인 이미지’는 정형화되어 금강역사상이나 사천왕상과 같은 불교 신장상에도 영향을 주었고, 신라로도 전해졌다. 당의 호인용, 불교 금강역사상, 원성왕릉 무인상의 얼굴 모습과 서로 흡사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다(도18, 19, 20). 만약 원성왕릉 무인상의 얼굴 모습을 두고 서역인을 직접 모델로 하였다고 이야기하려면 감은사 사리기의 사천왕상이나 석굴암 금강역사상을 두고도 서역인이 도래한 결과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사람의 도래가 반드시 ‘미술품의 재현’으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미술품의 재현’은 크게 두 가지로

두 화장 후 동해 앞바다에 수장하거나 산골하였지만, 원성왕만은 산골하지 않고 봉분을 마련하였다.

53) 林玲愛, 앞의 논문, 2012, 7~33쪽 ; 林玲愛, <신라 왕릉 조각의 미술사적 조망과 특수성> 《신라문화》 41, 2013, 135~162쪽.

54) 林玲愛, 앞의 논문, 2002, 45~67쪽.



(도18) 도14 호인옹의 얼굴 (좌)
(도19) 금강역사, 구황동 폐사지(사진 임영애) (중)
(도20) 원성왕릉 석인상 얼굴(사진 임영애) (우)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역인들과의 ‘접촉’ 혹은 ‘교류’의 결과 기왕의 미술에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고, 둘째는 도래한 사람, 즉 서역인의 특이한 얼굴 모습을 직접 미술품으로 재현한 경우이다. 우선 첫 번째 관점에서의 결과물은 통일기 신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일기 신라의 미술품은 강력한 당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에 서역인 혹은 서역문물이 유입되었을지라도 이미 동아시아 미술의 표준이 된 당의 미술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 그들로 인한 미술의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과 당을 통한 ‘서역 요소’의 유입은 있었지만, 서역인에 의한 직접적인 ‘서역 영향’을 보여주는 미술품은 알려진 바 없다.

문제는 두 번째 경우인데, 그 대표 예가 바로 원성왕릉 무인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원성왕릉 무인상을 두고 서역인을 모델로 하여 미술품으로 재현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신라와 서역간의 교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무인상의 얼굴 모습이 당 호인옹이나 불교 금강역사상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서역인이 신라 왕릉 호위의 역할을 맡아야할 당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역인이 통일기 신라에 도래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곧바로 미술품으로 ‘재현’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역할이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또 그 규모가 어떠한가도 큰 변수가 된다. 그들의 신기한 모습을 작은 도용으로는 표현하거나 벽화에 호선녀를 등장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는 심지어 ‘열린 제국’이라고 불리던 가장 개방적이고 유연한 당제국의 미술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舊唐書》, 《唐律疏議》, 《唐書》, 《李太白全集》, 《冊府元龜》, 《太平廣記》, 《全唐詩》, 《通典》, 《高麗史》

2. 논저

강희정, <唐代 菩薩像의 여성적 이미지와 그 정체성> 《미술사학》 20, 2006.

고병익, <한국과 서역>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사》, 삼지원, 1984.

김상범, <당대 후반기 揚州의 발전과 외국인사회> 《중국사연구》 48, 2007.

김정위, <중세 중동문헌에 비친 한국상> 《한국사연구》 16, 1977.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4, 2006.

김택민, <재당신라인의 활동과 公驗(過所) -엔닌의 공험 취득 과정에서 장보고·신라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김택민, 임대희 공역, 《譯註 唐律疏議 各則》(上) 한국법제연구원, 1997.

모리야스 다카오, <당대 불교적 세계 지리와 ‘胡’의 실태>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사계절, 2006.

木下 亘, <신라유물을 통해서 본 서역과의 교류> 《한국의 고고학》 17, 2011.

무함마드 간수, <중세 아랍인들의 新羅地理觀>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5, 1994.

민병훈, <소그드 상인과 위구르 상인> 《동헌학술논문집》 14, 2013.

박근칠, <唐代 漕運路와 外商의 活動 -江淮運河와 新羅商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3,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朴漢濟, <唐代 長安의 공간구조와 蕃人生活> 《全海宗博士八旬紀念論叢 동아시아 역사의 환류》, 지식산업사, 2000.

- 박한제, <隋唐 長安城의 市場風景 -胡漢文化의 交流와 統合의 現場-> 《歷史教育》 84, 2002.
- 서윤경, <中國 喪葬美術의 東西交流 -北朝시기 西域民族의 石葬具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24, 2007.
- 이시다 미키노스케, 이동철·박은희 옮김, <수당시대의 이란 문화> 《장안의 봄》, 이산, 2004.
- 이주형, <인도로 간 구법승>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사회평론, 2009.
- 이지운, <唐詩에서의 胡姬形象으로 본 唐代의 異文化 認識> 《中國語文學誌》 27, 2008.
- 이한상, <신라고분 속 외래문물의 조사와 연구> 《중앙고고연구》 6, 2010.
- 이희수,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Kush-nameh)의 발굴과 신라 관련 내용>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3, 2010.
- 이희수, <이슬람권의 한국사 관련자료 소개> 《역사와 현실》 8, 1992.
- 이희수, 《한·이슬람교류사》, 문덕사, 1991.
- 임영애, <‘서역인’인가 ‘서역인 이미지’인가 -통일신라미술 속의 서역인식-> 《미술사학연구》 236, 2002.
- 임영애, <신라 왕릉조각의 미술사적 조망과 특수성> 《신라문화》 41, 2013.
- 임영애, <신라시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왕릉 조영과 왕릉 조각의 시기 불일치 문제-> 《불교미술사학》 14, 2012.
- 임영애, <중국 신장상의 얼굴 변화 -異人化의 시작-> 《강좌미술사》 26, 2006.
- 임영애, 《교류로 본 한국불교조각》, 학연문화사, 2008.
- 정연, 서윤경 역, <北周 康業墓 석침상의 새로운 해석> 《미술사논단》 28, 2009.
- 정완서,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인 무덤 미술 재고찰 -소그드인 석장구 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연구》 15, 2010.
- 조성우, <唐代 景教 教團의 活動과 그 性格 -外來 宗教에 대한 唐의 태도와 관련하여-> 《중국고중세사연구》 4, 1998.
- 최재영,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 社會 -唐朝의 외래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韓國古代史研究》 35, 2004.
- 최재영, <당 長安城의 薩寶府 역할과 그 위치 -唐朝의 突厥對策과 관련하여->

《中央아시아研究》 10, 2005.

최재영, <唐 前期 長安内の 소그드人 對策> 《서울大 東洋史學科 論集》 23, 1999.

최진아, <대당제국과 팍스 시니카(Pax-Sinica)의 기획 -唐代 서사에 나타난 중국 문화의 混種性 연구-> 《중국어문학지》 37, 2011.

咸舜燮, <新羅麻立干時期에 移入된 中央아시아 및 西아시아의 文物> 《新羅, 서아시아를 만나다》, 국립경주박물관·국립제주박물관, 2008.

榎 一雄, 《中國の歴史》 11 -東西文明の交流-, 講談社, 1977.

葛曉音, <論唐前期文明華化的主導傾向> 《中國社會科學》 1997-3, 1997.

邱添生, <唐朝起用外族人士的研究> 《大陸雜誌》 38-4, 1969.

宮下佐江子, <新羅王陵の石像に見られる服飾品について>,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三次元計測技術を用いた新羅王陵石像彫刻の綜合的比較研究》, 研究成果報告書, 2009.

藤本勝次 譯, 《シナ・インド物語》, 關西大學出版部, 1976.

來村多加史, 《唐代皇帝陵の研究》, 學生社, 2001.

妹尾達彦, <都市の外國商人-8・9世紀の中國における異人買賣譚> 《都市と共同體》, 名著出版, 1991.

木下 亘, <國立慶州博物館藏 獅子孔雀連珠圓文石造物について>,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三次元計測技術を用いた新羅王陵石像彫刻の綜合的比較研究》, 研究成果報告書, 2009.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2007.

榮新江 外, <從撒馬爾干到長安·粟特人在中國的文化遺迹>,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榮新江, <絲綢之路上的粟特商人與粟特文化> 《西域 中外文明交流的中轉站》, 香港城市大學出版社, 2009.

劉俊文 撰, 《唐律疏議箋解》, 中華書局, 1996.

林玲愛, <“統一新羅의 美術에 現れる “西域人의 이미지”> 《佛教藝術》 287, 2006.

程喜霖, 《唐代過所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0.

中國古都學會編, 《中國古都研究》 12, 山西人民出版社, 1998.

曾布川 寬, 吉田 豊 編, <ソグド人の美術と言語>, 臨川書店, 2011.

向達, 《唐代長安與西域文明》, 明文書局, 1988.

Ibn Khurdādhbihah, *Kitābu'l Masālik wa'l manālik*(886), ed. de Goeje M.J., Leiden, 1889.
Schafer,E.H.,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ai Press, 1963.

ABSTRACT

Silla People's Recognition of Western Region People and Their Re-Creation as Art Works

Lim, Young-ae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advent of people necessarily leads to their ‘re-creation as art works.’ Here, we can think about the ‘re-creation as art works’ generally in two directions. In a first direction, we can consider cases where changes were brought about in the existing art as a result of ‘contact’ or ‘exchange’ with western region people, and in a second direction, cases where arrived people’s, that is, western region people’s unique face expressions are re-created as art works.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to find outcomes from the United Silla in the former direction because art works at that time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ang. Changes in Silla’s art due to western region people were not easy as Tang’s art, the standard of East Asian art, had been established firmly even though western region people or western culture was introduced in Silla. As a result, introduction of ‘western elements’ through Tang was found, but there have been no art of Silla that show direct ‘western influence’ from western region people.

The issue is with the latter cases, a representative of which has been stone figures of attendants found from King Wonseong’s tomb. However,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it is difficult to treat the figures as a re-creation of western region people as art works, or furthermore, as evidence that proves exchanges between Silla and the western region. This is because the figures' face expressions are not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ang's Sogdian figures or Vajrapani images in Buddhism, and we have no reason to assume that western region people play the role of protecting a Silla king's tomb. Though western region people arrived at Silla in her united kingdom period, it would not be easy to 're-create' their figures directly into art works. Things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ir roles were official or not, and on how big their scales were. While it would be possible anyway to express their figures in little clay images or to introduce Sogdian dancer in murals, cases beyond such categories did not occur even in the Empire of Tang, which were called an 'open empire' as she was the most open-minded and flexible country.

Key words : Tang, Sogdian, King Wonseong's tomb, stone figure of king attendant, western region, Unified Shilla, vajrapani

논문 투고일 : 2013. 8. 10. 심사 완료일 : 2013. 8. 22. 게재 확정일 : 2013. 8. 28.